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국세청, 플랫폼 노동자 등에 소득세 환급... 225만명에 2744억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8일부터 이달 말까지 인적용역 근로자 225만명에 총 2744억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3일간 환급대상자들에게 카카오톡 또는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7~2021년 귀속연도 중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받지 못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세부적으로는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 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기사검침원 등 127만명 등 총 225만명이다.

인적용역 근로자는 수입에서 3.3%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받지만, 사후에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상황을 통해 정산을 하지 않으면, 3.3% 원천징수한 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안내문 내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윈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원, 최대 312만원까지 지급되며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상담한다.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관련 어떠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을 경우 세무서, 경찰청(국번없이 112),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신고하면 된다.

### 지난해 법인세 신고 90.6만개... 서비스업 법인 수, 제조업도매업 앞질러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수가 전년도보다 8.1% 증가한 90만6000개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법인수는 2019년 78.7만개, 2020년 83.8만개, 2021년 90.6만개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태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서비스업 법인이 20만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7.8만개)과 도매업(16.7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순증한 법인 수는 6.8만개로 서비스업(1.6만개), 부동산업(1.4만개), 제조업(0.9만개)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비중으로는 전체 90.6만개 가운데 수도권(서울 경기인천)이 54.3만개(59.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법인세 신고 법인이 1만 개가 넘는 시군(자치)구는 서울 강남구 등 23개였다.

### 부산 동래세무서, 10월 17일 '신축청사' 이전

동래세무서(서장 김호현)가 31년간 사용하던 낡았던 청사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신축청사 시대를 연다. 신청사 업무개시는 10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신청사는 구청사 부지에 그대로 신축됐으며, 부산시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 소재에 위치하고 있다.

동래세무서 연혁은 1951년 4월 재무부 '부산사세청' 소속 기관으로 동래세무서가 개청(1966.03)되어 1975년 12월 부산 지방국세청 개청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동래세무서는 이후 부산진세무서(1979년)를 관할 분리한 뒤 해운대세무서(1992년)를 또다시 관할 분리했으며, 금정세무서(2001년)를 신설 분리시키는 등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31년된 구청사를 사용했던 동래세무서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사용했으며,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신청사가 완공됐다.

2001년 7월 동래세무서는 동래구 명륜동 577에서 구(舊) 동래세관 청사인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 건물로 이전했으며 2022년 10월 그 자리에 현 청사를 준공했다.

'납세자 편의성'에 대해선 "납세자 이동 동선을 고려한 청사 구조와 넓은 주차공간을 들 수 있다"며 "직원복지를 고려한 체육시설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사무가구를 설치했다"고 덧붙였다.